

# 주전 포수는 누구? 10개 구단 최약체 KIA 올해는 달라지나

공격력과 수비력 동시에 갖춘 주전 포수 없어

김민식·한승택·백용환 체제 기량 끌어 올려야

KIA 타이거즈의 주전포수가 누구일까?

2021 스프링캠프를 앞둔 KIA의 포수진은 취약 포지션으로 꼽힌다.

공격력과 수비력을 동시에 갖춘 주전 포수가 없다. 2020시즌은 한승택과 김민식이 분점했으나 딱히 주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포수가 없다.

한승택은 83경기에 출전했다. 262타석을 소화하며 타율 2할2푼6리, 29타점을 기록했다. 출루율은 3할8리이다. 다만 9홈런을 때려내 장타력에서

존재감을 보였다.

김민식은 개막전 엔트리 진입에 실패했다. 7월야에 승격했다. 69경기에 출전해 238타석을 소화하며 2할5푼1리를 기록했다. 2홈런, 21타점, 출루율 3할1푼을 기록했다.

타격에서는 한승택보다 김민식의 정교함이 낫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좋은 것도 아니다. 수비에서는 한승택이 한 수 앞선다. 역시 공격 부문이 아쉬움을 낳는다.

제 3의 포수 백용환은 작년 폴타입

으로 1군에 있었지만 포수 마스크를 쓰기 보다는 대타로 많이 나섰다. 52경기에서 107타석을 소화했다.

때문에 KIA 포수진은 10개 구단 가운데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다.

NC 다이노스의 작년 시즌 통합우승의 원동력은 강한 포수 양의지의 존재였다.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력과 그 보다 빛나는 수비 능력을 보여주었다. 강한 포수가 있는 팀이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타이거즈는 역대로 김무중, 장재근, 정회열, 최해식, 김상훈 등 간판 포수들이 있었고, 실제로 우승의 주역들로 활약했다.

그러나 김상훈 은퇴 이후 계보들이

올만한 포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

2017년 SK 와이번스에서 김민식을 트레이드로 영입해 주전 포수로 앉혔다. 김민식은 정규리그 우승과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우승 포수의 위상을 앞세워 자리를 잡는 듯 했다. 그러나 기량이 발전되지 않았고 주전 자리는 다시 비었다.

올해 KIA가 가을야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포수가 강해져야 한다는 진단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올해도 김민식 한승택 백용환 체제로 가동한다. 진갑용 배터리 코치와 윌리엄스 감독에게 이들의 기량을 끌어올려야 하는 목적인 과제가 주어졌다.

서선욱기자



## 전남 '나이지리아 특급' FW 사무엘 은나마니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특급 외인 사무엘 은나마니(등록명 사무엘)를 영입했다. 윙포워드와 스트라이커 두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사무엘은 폭발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공간 침투와 탄탄한 체격으로 상대 수비수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공격수 치고 크지 않은 키임에도 탁월한 위치선정, 탄력성 좋은 점프력과

헤더 스킬을 겸비한 사무엘은 무엇보다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빨라 득점력이 뛰어난 공격수이다.

2018시즌 리그 27경기에서 12득점하는 활약으로 소속팀 AFC Eskilstuna를 스웨덴 1부로 승격시킨 사무엘은 지난 시즌에도 28경기 13득점 2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에이스로 활약했다.

전남으로 이적한 사무엘은 K리그에서 임팩트 있는 활약을 한 외인들과 인연이 깊다.

같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치술(수원 FC, 2019)과는 스웨덴에서 맞대결 상대로 만난 사이지만, 사적으로는 가까워진 친구 사이이다.

강원과 경남에서 뛰 제리치와는 세르비아 1부리그 FK Sloboda Uzice에서 2016/17시즌 동료로 함께 공격진을 이끌었다.

사무엘은 이 둘과 지금까지도 자주 연락하며 한국에 대해 많이 접할 수 있었다.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전남과 계약을 완료한 사무엘은 "개인적으로 아시아에 온 게 처음이다. K리그에서 뛰는 게 나에게 큰 도전이지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환상적인 시즌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빨리 팀에 합류해서 훈련도 하고 많은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 그리고 공격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기록해 팀이 K리그1으로 승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무엘 선수는 국적 나이지리아, 포지션 FW (CF/WF), 95년생으로 신장 183cm 체중 89kg. 선수경력 FK Sloga 33 (2014, 세르비아 1부), GFK Jagodina (2015, 세르비아 2부), FK Donji Srem (2015~16, 세르비아 2부), FK Sloboda Uzice (2016~17, 세르비아 2부), AFC Eskilstuna (2018~20, 2019 스웨덴 1부 / 2018 & 2020 스웨덴 2부)에서 활약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 美매체 "김하성, 샌디에이고 로스터 40인 중 12위"

베이스볼아메리카 유망주 랭킹에서 김하성 78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한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현지 언론들이 연일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샌디에이고 지역 매체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리뷴은 19일(한국시간) 샌디에이고의 40인 로스터 랭킹을 정하면서 김하성을 12위에 올려놨다.

김하성은 2루수 경쟁자로 꼽히는 제이크 크로넬위스보다 높은 순위

에 올랐다. 크로넬위스는 15위다.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리뷴은 "김하성은 샌디에이고 입단 후 첫 기자회견에서 2루수로 뛰고 싶다고

했다. 주전으로 뛸 2015~2020년에는 평균 20홈런, 20도루 이상을 해냈다"고 밝혔다.

또 "2020시즌 김하성의 볼넷/삼진 비율은 1.10(75볼넷/68삼진)이었다. 첫 폴타입 시즌이었던 2015년 56볼넷/115삼진(0.49)보다 두 배가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베이스볼아메리카(BA)는 유망주 100명을 선정하면서 김하성은 78위로 뽑혔다.

2013년 류현진을 42위에 올려놓은 BA는 김하성이 류현진 이후 처음으로 100위 내에 이름을 올린 선수라고 설명했다.

BA는 "김하성은 공수에서 평균 이상의 재능을 갖춘 선수다. 운동 능력이 좋고, 좋은 유격수가 될 수 있는 수비 능력도 갖췄다. 2루와 3루도 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샌디에이고에서는 김하성 뿐 아니라 ▲좌완 투수 맥켄지 고어(10위) ▲내야수 CJ 어브람스(11위) ▲포수 루이스 캄파사노(36위) ▲좌완 투수 에드ريان 모레혼(76위) ▲좌완 투수 라이언 웨더스(84위) ▲외야수 로버트 하셀(85위) 등 총 7명이 BA 유망주 순위 100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 뉴스

## '개구리 왕눈이' 들으며 버틴 정찬현 "후회없이 던지고 싶다"

허리 수술과 재활 거쳐 2020년 선발 투수로 변신



정찬현(31·LG 트윈스)은 2016년 황색인대 골화증으로 경주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3년 뒤 2019년 초 같은 질환이 재발해 또다시 수술대에 누웠다. 2018년 마무리 투수로 맹활약하며 세이브 3위(27세이브)에 오르기도, 2019년에도 평균자책점 1.64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라 아쉬움이 진했다.

더욱이 '두 번째 수술'이라는 점에서 그의 마음고생도 더했다. 정찬현은 구단을 통해 "사실 두 번째 허리 수술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수술을 해서 더욱 결정하기가 힘들고 어려웠다. 첫 번째 허리 수술을 했을 때 너무 힘든 기억이 많았다. 내가 정말 마운드에서 다시 공을 던질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

라고 털어놨다. 다시 일어난 그는 2020년 선발 투수로 돌아왔다. 주로 불펜 투수로 뛰던 정찬현의 11년 만의 변신이다.

19경기에서 7승4패 평균자책점 3.51의 성적을 내며 마운드의 한 축을 담당했다.

지난해 6월27일 문학 SK 와이번스 전에서는 9회말 1사까지 노히트노런을 기록하는 등 생애 첫 완봉승을 거두기도 했다.

정찬현은 "처음 선발로 나설 땐 익숙하지 않았지만, 긴장감보다 설레는 마음이 더 컸다. 팀에 필요한 보직을 내게 맡겨 주시고 배려해주신 감독님과 코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했다"고 떠올렸다.

힘을 앞세웠던 마무리 투수와 달리 여러 구종으로 타자들을 요리한 것에 대해서는 "선발을 하면 긴 이닝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구속보다는 다양성에 중점을 뒀다. 내가 던질 수 있는 구종을 각각 다른 스피드로 던지면서, 완급조절을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목표도 단순히 잘 던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아프지 않고, 끝까지 후회 없이 마운드를 지키는 것이다.

정찬현은 "기록에 대한 욕심은 정말 없다. 이렇게 다시 마운드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며 "벌써 데뷔한 지 13년이 됐는데 항상 지난 시간은 아쉽다. 건강하게 한 해 한 해 후회 없이 던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찬현은 "가사 중에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라'는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다.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재활을 했다"며 "내가 11번으로 등번호를 바꾼 것도 11번 숫자처럼 내 척추를 깨끗하게 잘 잡아주고 버텼으면 하는 의미"라고 떠올렸다.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지만, 결국 오펙이처럼 다시 일어났다. 곁에서 그를 함께 일으켜준 이들 덕분이다. "곁에서 늘 묵묵하게 응원해주며 항상 힘이 되어준 아내가 있었고, 컨디션 코치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어려운 재활을 포기하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스스로도 마음을 계속 다잡았다. 재활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는 만화 '개구리 왕눈이'의 주제가다.

정찬현은 "가사 중에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라'는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다.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재활을 했다"며 "내가 11번으로 등번호를 바꾼 것도 11번 숫자처럼 내 척추를 깨끗하게 잘 잡아주고 버텼으면 하는 의미" 김미희기자

## 일류첸코 '화룡점정'...김상식호 전북 '화공시대' 연다



전북 현대 일류첸코 영입. (사진=전북 현대 제공)

K리그1 4연패에 빛나는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검증된 외국인 골잡이 일류첸코 영입으로 새 시즌 공격 모토인 '화공(화끈한 공격축구)'에 화룡점정을 찍었다.

2021년 전북이 확 바뀐다. 조제 모라이스가 떠난 새 사령탑에는 선수와 코치로 12년간 전북팬으로 활약해 온 김상식 감독이 선임됐다. 또 새 감독을 보좌할 코치진에는 김두현 수석코치와 이운재 골키퍼 코치가 영입됐다.

김 감독의 목표는 K리그1과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동시 제패다. 선수와 코치로 전북에서 총 8차례 K리그 우승을 경험하고, ACL과 대한축구협회(FA)컵 정상까지 올라 본 자신감이다.

뛰어난 지도자들의 장점도 두루 흡수했다. 전북에서 장기 집권한 최강희 감독의 노하우는 물론 첼시(잉글랜드), 인터밀란(이탈리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등 유럽 빅클럽을 거친 모라이스 감독의 경험까지 더해졌다. 수년간 내공을 다진 김 감독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선수 시절부터 항상 재미있는 축구, 공격 축구, 팬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꿈꿔왔다. 내 축구는 흥과 멋, 화공이다. 흥겹고 재미있고 멋있는, 그리고 화끈하고 화려한 공격 축구를 보여드리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화공을 내건 김 감독은 자신만의 팀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손준호(산둥루닝)와 신형민(울산)이 떠난 중원엔 대구FC의 젊은 피 류재문을 데려와 활력을 더했다.

또 김승태, 한승규, 최영준 등 K리그1 최고의 공격수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임대를 마치고 전주성으로 복귀했다. 모라이스 감독 아래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이들은 김 감독 체제에서 중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항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최영준은 중국 슈퍼리그 무대로 떠난 손준호의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선수 라인업은 더 화려하다. 일류첸코의 가세로 K리그1 최강 공격진이 완성됐다. 기존의 브라질 특급 구스타보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출신 원어 모 바르우에 일류첸코까지 합류하면서 높이와 속도에서

강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일류첸코는 지난 시즌 K리그1에서 올산 현대 주니오(26골)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오른 검증된 골잡이다. 컵 대회까지 포함하면 지난 시즌 30경기 22골 9도움을 기록했다.

전북 구단은 "구스타보와 일류첸코 모두 189cm의 장신으로, 제공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세트피스에서 골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아시아쿼터로는 쿠니모토(일본)가 이번 시즌에도 전북 유니폼을 입는다. 지난 시즌 막판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른 쿠니모토는 재활로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시즌 국가대표 골키퍼 김진수(알사흐라)가 중동으로 떠난 뒤 대체자를 찾지 못했던 측면 수비도 보강한다.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는 전북엔 측면 수비의 더블 스쿼드가 절실하다. 이용과 최철순 모두 30대 중반으로 후계자는 찾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실제로 지난 시즌 두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측면에 과부하가 걸렸다.

전북은 올림픽 대표 수비수인 이유현(전남)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변수가 없는 한 기존 베테랑 이용, 최철순과 이주용 그리고 젊은 피 이유현이 새 시즌 측면을 책임질 전망이다.

뉴스

뉴스